‘반정부 가요’ 그릇된 선입견이 5·18 망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미숙 처리

행사위 “5·18 보는 정부 시각이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본 행사 금지가 시발점이 돼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와 5·18민중항쟁 30주년 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식으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화해와 용서,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5·18 30주년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앞으로도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념식을 주최한 국가보훈처는 5월 단체 및 행사위와 사전에 이 같은 문제를 조율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념식 폐회 배경음악으로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을 선정했다가 뒤늦게 운동가요인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트는 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지난해부터 사전 행사에 배치했으며, 방아타령은 30주년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선정한 듯한데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또 5월 단체와 행사위가 사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본 행사 금지를 포함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이명박 정부의 5·18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문제를 떠나 방아타령을 배경음악으로 하려하고 잇따른 보수단체의 5·18 폄하발언 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국가보훈처와 정부의 역사의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 5월 단체가 사전에 5·18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에 따라 기념식 불참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애초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를 국민통합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3·15 의거와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5·18 30주년 기념식 불참 ▲보수단체의 잇따른 5·18 폄하 발언에 대한 대처 미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오월의 노래’ 공모 등으로 5월 단체와 행사위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행사위 유봉식 사무처장은 “5·18 정신은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배치 문제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5·18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래도 못부르게 하다니”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 행사장 입구. 5월단체 가족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식전 행사에 배치한 데 대해 항의하던 중 행사장 보안검색대가 부서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황석영 노랫말 김종율 곡

▲임을 위한 행진곡

이 곡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당시 30세)과 1979년 사망한 박기순(여·당시 21세)의 영혼결혼식을 담은 노래굿 테이프(넋풀이-빛의 결혼식)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소설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씨의 시 ‘묏비나리’를 개작한 노랫말에 전남대생 김종률씨가 곡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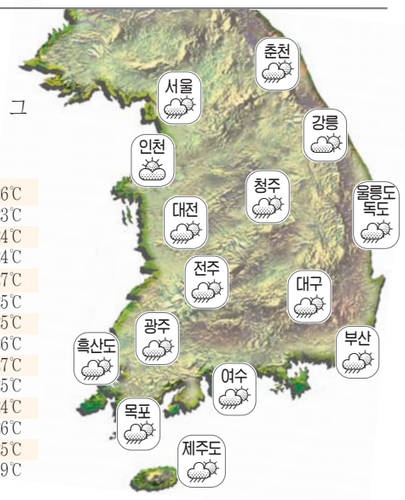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6분 해짐 19시 32분 달뜸 10시 11분 달짐 --시 --분

촉촉한 보리밭

한때 비가 온 후 오전중에 그치겠다.

광 주	가끔비온뒤갬	17/26℃
목 포	가끔비온뒤갬	16/23℃
여 수	가끔비온뒤갬	17/24℃
완 도	가끔비온뒤갬	16/24℃
구 례	가끔비온뒤갬	18/27℃
해 남	가끔비온뒤갬	16/25℃
장 흥	가끔비온뒤갬	16/25℃
고 흥	가끔비온뒤갬	17/26℃
순 천	가끔비온뒤갬	18/27℃
영 광	가끔비온뒤갬	16/25℃
진 도	가끔비온뒤갬	16/24℃
전 주	가끔비온뒤갬	17/26℃
남 원	가끔비온뒤갬	15/25℃
흑산도	가끔비온뒤갬	13/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경고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5:57 18:02	11:13 23:15
여수	00:35 12:41	06:42 18:5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날 씨						
최저/최고	16/29	17/29	17/25	18/24	16/26	15/27

박기준·한승철씨 사법처리 검토

‘스폰서 검사’ 조사단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중인 진상조사단은 18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의 진정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들 검사장은 물론 정씨도 접대의 대가성을 완강하게 부인해 뇌물 등의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으며 정씨와의 대질 등 남은 조사는 19일 국회의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조사단은 정씨와 접대 리스트에 오른 다른 검사들, 접대 업소 관계자 등에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접대의 대가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두 검사장은 식사와 술접대 등은 일부 시인했으나 성접대와 금품수수, 대가성 등은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쪼개진 기념식… 식장 좌석 텅텅비어 ‘어수선’

■ 5·18 30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경찰 4000명 물대포 동원 … 참배객 검문

18일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이 빗속에서 거행됐다. 5월단체와 국가보훈처가 기념식을 제 각각 가진데다 보훈처 주관 기념식장의 2000여 좌석 중 1000여석이 비어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30주년 기념식이 열린 이날 행사장에는 일본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본인 20명으로 구성된 ‘한국 양심인을 지원하는 전국 모임’ 회원들은 이날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5월 정신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기념식을 마치고 묘역·추모관·유영 봉안소 등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와타나베 가즈오(68·渡邊一夫·일본)씨는 “이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민주주의 전개과정을 알게 됐다”며 “광주의 5월 정신의 참 의미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간다”고 말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홀로 5·18 민주묘지를 찾은 나카지마 노부유키(65·中島信孝·일본)씨는 유족들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추모곡 제창 배제에 반발해 기념식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유족 50여명이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할 즈음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행사장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는 무대까지 진출해 경비요원에 의해 끌려 나왔으며 다른 유족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붙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식이 끝날 때까지 행사장 구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구호를 외쳤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기념식 당일에 타지역 초등학생과 교사들이 묘지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고양시 초등 대안학교인 자유학교 학생 25명이 5·18구묘지를 찾아 100여기를 돌며 일일이 참배해 다른 추모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이들은 지난해(29주년 기념행사)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묘역을 둘러본 뒤 5월 정신을 기렸다.

○…광주 살레시오고·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30명이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5·18 당시 희생된 선배들의 넋을 기렸다.

학생회장단은 국립묘지에 도착,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묘역에 들러 손수 준비해온 국화꽃바구니를 선배들의 묘역에 바쳤다.

○…5·18민중항쟁 30주년 행사위원회가 전야제에 맞춰 17일 옛 전남도청 본관에 내건 대형 플래카드에 일부 시민들이 어리둥절.

플래카드 상단에는 ‘저항’이라는 대형 글씨가, 그 아래에는 ‘주먹으로 벽이라도 쳐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대해 행사위 관계자는 전야제 주제인 ‘저항’에 맞춰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야제 참여한 한 시민은 “글씨 모양이나 문구 내용이 다분히 투쟁적이고 선동적이어서 아쉬웠다”면서 “오월정신이 애초 저항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끝은 인권 평화 민주라는 점을 반영했으면 좋을 듯 했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이날 전·의경 45개 중대 등 경비 인력 4000명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묘지 주변 등에 배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행사 경비를 위해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20개 중대의 전·의경을 지원받았다. 또 ‘물대포’라고 불리는 살수차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국립묘지 주요 관문인 북구 청옥동 삼거리에서부터 묘지 정문까지 3㎞에 이르는 도로에 전경들을 1~2m 간격으로 세우고, 참배객들을 일일이 검문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념식에 앞서 경찰은 또 하나의 기념식이 열린 5·18구묘지와 국립묘지 사이를 버스로 가로막아 봉쇄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양동시장에 ‘5·18 토요장터’ 연다

광주 양동시장 6개 상인회가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화해와 상생을 위한 양동시장 토요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는 양동시장 6개 상인회가 주최하고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양동시장 사업단이 주관하며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광주시·서구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토요장터는 1980년 5·18 당시 십시일반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의 나눔 정신을 구현하는 의미 깊은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0년 전 그때 그 가격전’, ‘주먹밥 나눔 행사’, ‘양동시장 만물전’, ‘양동시장 일파만파 경매전’으로 구성돼 있다.

/양수현 yang@kwangju.co.kr